



TV가 생기고, 영화가 인기를 끌고, 화려한 콘서트와 뮤지컬이 무대를 장악했지만 연극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하다. 배우들의 눈짓, 호흡까지도 아주 가까워서 느낄 수 있는 소극장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장감. 의상만 갈아입으면 역할이 바뀌는 설정도 연극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다.  
 종합예술인 연극은 이래저래 바깥활동이 꺼려지는 겨울 실내에서 즐기기에 딱 좋은 데이트 코스지만 아쉽게도 현재 광주에서 시연중인 작품은 단 2개뿐. 그러나, 걱정은 노노. 탄탄한 기획력과 연기력은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입증된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.

## 영화 말고 색다른걸 찾는다면?

기분좋은극장

### S다이어리

연극 전용 소극장 '기분좋은극장'에서 시연되고 있는 어른들의 솔직한 연애담, 'S다이어리'. 배우 김선아가 출연했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2013년부터 전국에서 20만 관객몰이를 기록하기도 했다. 광주에서는 5년만의 시연이다.  
 철부지 시절 만났던 첫사랑부터 '알 건다 아는' 어른이 돼 만난 사랑까지 스물아홉살 나진희의 실랄한 연애사가 1시간 40분 동안 그려진다.  
 자극적이지만 한 19금 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. 연애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. 특히 연애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라면 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.  
 전석은 3만5천원이며,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8시, 토요일 오후 3시-6시, 일요일 오후 4시 공연하며, 만 17세 이상 관람가다.



'S다이어리' 공연 모습



동산아트홀

### 한뼘사이

높은 평점·넘치는 후기 재미 보장  
 2개 작품 광주에서 절찬리 시연 중  
 이번 주말 특별한 연극 데이트로



'한뼘사이'

개관 10주년을 맞은 유·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 '한뼘사이'가 시연중이다.  
 같은 오피스텔,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청춘남녀의 달을 듯, 말 듯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. 불 같은 성격의 강력계 여검사와 뇌살 좋은 이혼전문 변호사, 열혈 신입 사회부 기자, 사기꾼 등 비슷한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을 것 같은 4명의 남녀와 분위기 메이커까지 총 5명의 배우들이 열연한다. 평점 9.9점, 무수한 SNS 후기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입증한다.  
 연극은 화-금 오후 7시30분, 토요일은 3시-7시 두 차례, 일요일은 3시에 진행된다.  
 좌석은 3만원, 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각종 할인 정보가 많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.

통합뉴스룸-주현정기자 doi185@srb.co.kr



'한뼘사이' 공연 모습



광주 최대 변화가! 최고 광고효과!  
**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** (신세계안과옥탑)

<p>01  <b>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</b>                  신세계백화점, U-Square, 광주종합버스터미널, e마트 등</p>	<p>02  <b>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</b>                 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, 57개 버스노선 경유지(광주 최다)</p>
<p>03  <b>무등일보,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, 높은 주목도!</b></p>	<p>04  <b>두 개 (무진대로, 죽병대로)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</b></p>

**1일 100회, 월 3,000회 노출!!** (20초 광고 기준)

- ▶ 스크린 크기: 13.6m x 7.7m
- ▶ 해상도: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
- ▶ 하루 18시간, 20구좌상업 광고 노출
- ▶ 광고 노출 시점: 계약 즉시 가능

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.1 광고회사  
**SRB 에드** 문의 062) **510-4650**